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신뢰의 매개효과

양미라¹, 김해숙^{2*}

¹공군 제1전투비행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²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nxiety in Pandemics (COVID-19):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Trust

Mi-Ra Yang¹, Hae-Sook Kim^{2*}

¹Barracks life professional counselor, ROKAF 1st Fighter Wing

²Professor,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COVID-19)에서 일반인이 경험하는 불안, 사회적 지지, 신뢰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사회적 지지와 불안의 관계에서 신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첫째, 각 변인들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는 사회신뢰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부신뢰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 모두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사회신뢰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를 사회신뢰가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사회적 지지, 감염병 불안, 신뢰, 사회신뢰, 정부신뢰

Abstract In this study, we looked at the relationship among the anxiety, social support and trust experienced by the general public during the pandemic situation (COVID-19), and confirmed the effect of trus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nxiety. First, the correlations analysis that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mong the variabl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anxiety. While it was also found that social support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with social trust,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shown with regards to government trust. Furthermore, government trust and social trust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anxiety.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at social support would affect anxiety through social trust. It showed that social trust part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anxiety.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e discussions and suggestions were presented throughout the study.

Key Words : COVID-19, Social Support, Anxiety related to COVID-19, Trust, Social trust, Government trust

*Corresponding Author : Hae-Sook Kim(2015154@honam.ac.kr)

Received August 24, 2020

Accepted November 20, 2020

Revised November 4, 2020

Published November 28, 2020

1. 서론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첫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급속도로 번졌고, 결국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pandemic)을 선언했다.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실외 활동 기반의 대면 접촉은 감소하고 실내 활동이 늘어나면서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증가하는 등[1-3]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인 삶의 모습들이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며, 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신과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감염자일 수 있다는 생각, 미열과 기침, 자신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게 된다. 메르스가 유행하던 때에는 일반인의 80.2%가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했으며[4], 사스 당시에는 감염자들에게서 불안,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고, 이러한 정신적 후유증이 장기화되기도 하였다[5, 6].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7, 8], 신종전염병 발생이 일상생활 스트레스보다 심하고, 광범위하며 통제 불가능한 정도의 디스트레스를 유발하며[9,10],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1].

최근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이 메르스 때보다 높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응답자의 80%)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불안감[12], 경제적 영향도 메르스 때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13]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와 사회적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2020년 1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 트라우마센터, 나주·공주·춘천의 국립병원 등 5곳에서만 1만 5,650건의 심리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가격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담은 11만3,206건에 달했다[14].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이들과까지 고려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의 한 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상당한(중간 수준 이상의) 제약을 경험하며, 19%의 사람들이 관심이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경험함을 보여준다. 또한 자신의 감염으로 인해 가족 및 타인이 감염되거나 직장 및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15].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사회·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이것이 지속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트장애나 자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불안 등의 정서적 불편감이 큰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맺기와 사회적 지지는 더욱 중요한 보호요인일 수 있다[16-18]. 사회적 지지는 상호간의 신뢰와 도움이 바탕이 되는 감정적 결속으로 이뤄지는 관계를 의미하며, 어떤 스트레스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여러 가지 정보와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여 위기 대처와 변화에 대한 적응을 촉진시키며, 인생 주기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나 변화를 경험하는 개인을 보호하여 평형을 이루게 함으로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19, 20].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교류와 사회활동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회의 일부이고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지지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을 개개인이 잘 통제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에는 각자의 협동이나 협력이 중요하며, 이에 '신뢰'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1]. 일반적으로 신뢰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 행위자의 주관적 확률'을 의미한다[22, 23]. 한국사회의 신뢰와 관련하여,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의 '2019 세계변영지수'에서는 한국사회를 '저(低)신뢰 사회'로 진단했다[24].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한국사회의 신뢰에 대해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설명하면서, 한국인은 강한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혈연집단 내 신뢰는 강한 반면에 혈연을 벗어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정부나 제도적 장치에 대한 신뢰 역시 낮게 나타나는 등 저신뢰 사회라 평가하고 있다[25, 26]. 그러나 과거 경제위기나 재난, 감염병 등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이 협력하여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러한 평가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사회의 신뢰 수준은 재난이나 위기상황에서 가감 없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코로나19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생필품이나 총기류를 사재기하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사회는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최근의 여러 조사들에서 한국사회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임에도, 국민 상당수가 정부와 사회, 질병

관리본부, 국민 개개인에 대해 높은 수준의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28]. 이러한 현상들로부터 사회나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이 감염병 상황에 질서 있게 대응하고 협력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대처와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신뢰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신뢰를 연구한 대부분의 심리학 논문들은 대인간 신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9]. 그러나 개인적 차원, 즉 미시적인 관점을 넘어 보다 거시적으로 신뢰를 정의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혹은 자신들이 속한 조직과 기관에 대해 가진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확정된 기대'라고 말이다[30]. 신뢰는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정의되며, 신뢰대상별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회학 연구에서는 공동체 구성원(시민)들에 대해 갖는 집합적 태도에 대해 '사회신뢰' 개념으로 설명한다[31,32]. 이때 신뢰는 일반화된 신뢰로, 합리적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일반 사람들의 선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일반화된 상호성의 규범에 기초하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협력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시민적 행동에 있어 더 높은 참여경향을 보이게 한다[26]. 이러한 신뢰는 위기 상황 대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데에 영향을 줄 거라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사회를 신뢰할수록 스트레스, 불안, 우울 정도가 낮음을 보이고 있으며[19], 신뢰가 정신적·신체적 건강 상태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33-37].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를 사회신뢰로 정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의 사회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각종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는 일반사람들의 불안을 유발·제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38], 사스 발생 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에 93%의 만족감을 평가 했던 싱가포르 시민들이 불안을 덜 느꼈다는 보고 등[4,39]에서 신종 감염병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사회적 변인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함을 고려할 수 있다[38,40].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

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문항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기보다, 타인에 대한 경험에 입각하여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신뢰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대인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 맥락, 상호작용[41, 42에서 재인용]이 신뢰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보며, 친구사이의 우정관계나 서로 신뢰하는 사회적 환경 역시 일반인에 대한 신뢰(사회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다[43,44]. 청소년의 신뢰에 대한 연구에서도 학급 내 친구와의 연계를 통해 강한 신뢰를 경험하는 경우 추상적 타인에 대한 신뢰(사회신뢰)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48]. 사회적 지지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경험으로 볼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한 유대는 강한 정서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고[45, 46],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생산해낼 수 있다. 영국의 사회자본과 사회신뢰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웃 애착(약한 유대 관계), 사회네트워크(강한 유대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사회신뢰에 현저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47]. 한편,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를 신뢰할수록 정부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44]와 달리, 다른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뢰가 대통령, 정치인, 언론에 대한 공적신뢰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48]는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정부신뢰간의 관계를 살펴볼 근거로 작용한다.

현재까지 감염병과 정신건강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뤄졌으나, 사스와 메르스 사태 때 확진환자[49,52], 유가족[51], 의료종사자[8,50,53]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며, 일반인들에 대한 연구[4]는 적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상황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를 매개요인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인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사회신뢰, 정부신뢰, 불안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사회적 지지와 불안간의 관계를 사회신뢰, 정부신뢰가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세종, 대전, 경북,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만 18세 이상인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다. Google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모바일과 SNS를 통해 설문을 실시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 발생 후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4월 11일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미만으로 한동안 유지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감소하며 진정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한 2020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양일간 진행되었고, 총 329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 중 해외거주자 1명을 제외한 32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이 시기에 설문을 실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기 시작했으나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어려움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향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이 의미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소요시간은 약 15분 정도였고, 본 설문이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임을 알렸고, 연구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경우 연구 윤리에 의해 보호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해 설문이 실시되었다. 참여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없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대처방법 및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안내했다.

2.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회신뢰와 정부신뢰에 대해 묻는 문항의 경우, 연구 주제와 목적에 부합하는 척도가 전무하다는 점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하였다. 불안과 사회적 지지의 경우 기존 척도[54, 55]를 사용하였다.

2.2.1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거주방식, 결혼여부, 자녀유무, 생활수준, 거주지역, 확진여부와 같은 기본적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2.2 불안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가 제작하고,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역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중 상태불안(state anxiety) 척도 20문항만을 사용하였

다[54]. 이 척도는 과거 메르스 같은 감염병 상황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바 있다[50]. 본 설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당신의 감정/사고/행동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표시해주세요'라고 안내하였다. 상태불안은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의 상태로서 강도가 다양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주관적이며 의식적인 불안상태로, 자율신경계의 활동을 고조시키며 긴장과 염려의 느낌을 지속적으로 지각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나는 마음이 차분하다', '나는 마음이 든든하다', '나는 긴장되어 있다'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을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단히 그렇다' 4점, '보통 그렇다' 3점, '조금 그렇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4이다.

2.2.3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는 Broadhead, Gehlbach, De Gruy, & Kaplan(1988)가 개발하고, 서상연(1997)이 번안한 한국어판 Duke-UNC 사회적지지 질문지(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FFSQ)를 사용하여 측정했다[55]. FFSQ의 '친구 지지(Confidant support)', '정서적 지지(Affective support)'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는다', '일이나 가사에 있어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개인적·가정적 문제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말할 기회가 있다', '금전적 문제에 관하여 말할 기회가 있다', '초대를 받아 외출하고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한다', '인생의 중요한 면에 대하여 유용한 충고를 받는다', '내가 몸져누울 때 도움을 받는다'의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상연(1997)이 보고한 문항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다.

2.2.4 신뢰

신뢰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사회신뢰)이나 정부(정부신뢰)가 코로나19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대한 신뢰를 각각의 단일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경주지진을 간접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 등[56, 57]에서 신뢰에 대해 단일문항으로 측정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는 내가 속한

지역사회와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과 대처를 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는 문항을 통해 사회신뢰와 정부신뢰를 측정하였다. 두 질문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신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2.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고,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을 살펴보았다. 둘째, Pearson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각 변인들이 불안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에 따르면 신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지지가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1단계). 둘째, 사회적 지지가 신뢰(정부신뢰, 사회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2단계). 셋째, 사회적지지, 신뢰(정부신뢰, 사회신뢰), 불안의 관계를 종합해 분석할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정부신뢰, 사회신뢰)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검증한다(3단계). 이 때 종속변인인 불안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두 번째 단계보다 감소하며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을

경우 신뢰 변인이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하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유의할 경우에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기술 통계치

연구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전체 328명 중 남성은 146명(44.5%), 여성은 182명(55.5%)명 이었고, 연령대는 청년(19~34세)이 104명(31.7%), 중년(35~49세)이 185명(56.4%), 장년(50~64세)이 39명(11.9%)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44명(13.4%), 대졸이 215명(65.5%), 대학원졸이 63명(19.2%), 직업은 전문직·관리자가 74명(22.6%), 공무원·근원이 73명(22.3%), 서비스·판매·농림어업·노무업이 86명(26.2%), 무직·주부·학생이 66명(20.1%), 기타가 29명(8.8%), 거주방식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50명(15.2%),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78명(84.8%)으로 나타났다. 미혼이거나 이혼상태인 경우는 103명(31.4%), 기혼인 경우는 225명(68.6%)이며, 자녀가 있는 경우는 193명(58.8%), 자녀가 없는 경우는 135명(41.2%)이었다. 지각된 생활수준의 경우, '부유한 편이다, 중산층이다, 못 사는 편이다, 가난하다' 중 하나를 선택하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n=328)

Variables		Response frequency (%)	Variables		Response frequency (%)
Gender	Male	146(44.5)	Residential style	Living alone	50(15.2)
	Female	182(55.5)		Living with a family	278(84.8)
Age	Youth (19-34)	104(31.7)	Marital status	Single, divorce	103(31.4)
	Middle (35-49)	185(56.4)		Married	225(68.6)
	Old (50-64)	39(11.9)	Child status	Having children	193(58.8)
Education	A high school graduate or below	44(13.4)		No children	135(41.2)
	A college graduate	215(65.5)	Perceived standard of living	High	218(66.5)
	Graduate degree or higher	63(19.2)		Low	110(33.5)
Occupation	Professional, manager	74(22.6)	Current residential area of living	More than 90 cases confirmed	135(41.2)
	Civil servants, soldiers	73(22.3)		Less than 90 cases confirmed	193(58.8)
	Service, agriculture, forestry, labor	86(26.2)	COVID-19 confirmation	Yes	3(0.9)
	No job, housewife, student	66(20.1)		No	325(99.1)
	Other	29(8.8)			

게 하였으며, 이 중 '부유한 편이다'와 '중산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잘 사는 편'으로 범주화하였고, '못 사는 편이다'와 '가난하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못 사는 편'으로 범주화하여 정리했다. 자신이 잘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18명(66.5%), 못 사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0명(33.5%)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확진자가 90명 이상인 지역과 확진자가 90명 미만인 지역으로 재범주화 하여 살펴보았다. 확진자가 90명 이상인 지역(서울, 경기, 인천,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충남)에 거주하는 사람은 135명(41.2%), 확진자가 90명 미만(53명 이하)인 지역(강원, 충북, 세종, 대전, 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193명(58.8%)으로 나타났다. 자신 또는 주변인의 확진여부를 물었을 때 모두 감염된 적이 없다(미감염)는 응답이 325명(99.1%), 지인이 확진자라는 응답이 3명(0.9%)였다.

3.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연속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상관계수와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들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388, p<.001$). 사회적 지지는 사회신뢰($r=.152, p<.001$)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부신뢰($r=-.002, p=.975$)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신뢰($r=-.164, p<.01$), 사회신뢰($r=-.259, p<.001$)는 불안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같은 신뢰 범주에 속하는 정부신뢰와 사회신뢰($r=.550, p<.001$)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 정부신뢰가 높을수록 사회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85를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문제는 보이지 않았다.

3.3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불안 간의 관계에서 사회 신뢰의 매개효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사회신뢰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단계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사회신뢰가 사회적 지지와 불안 간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예측변수를 사회적 지지로, 결과변수

Table 2. A correlation between anxiety, social support, and social trust

Variables	Anxiety	Social support	Government trust	Social trust
Anxiety	-			
Social support	-.388***	-		
Government trust	-.164*	-.002	-	
Social trust	-.259***	.152***	.550***	-
M	23.42	18.66	3.06	2.84
SD	11.01	7.07	0.95	0.88

* $p<.01$, *** $p<.001$

Table 3. The Mediation Effect of Social Trust in Relations between Social Support and Anxiety

Stage	Path	B	β	R ²	F
1	Social Support → Anxiety	-.604	-.388	.148	57.890***
2	Social Support → Social Trust	.019	.152	.023	7.725**
3	Social Support → Anxiety	-.556	-.357	.187	38.592***
	Social Trust → Anxiety	-2.580	-.205		

** $p<.01$, *** $p<.001$

Table 4. Bootstrapping result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trust

Variables	Boot Coefficient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LLCI(Lower)	ULCI(Upper)
Social trust	-.0486	.0209	-.0911	-.0097

를 불안으로 설정한 1단계에서 회귀계수 $\beta = -.388$, $p < .001$ 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결과변수를 사회신뢰로 설정한 2단계에서 회귀계수 $\beta = .152$, $p < .01$ 로 두 변수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예측변수를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로, 결과변수를 불안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3단계 결과 예측변수의 회귀계수 $\beta = .357$, $p < .001$, 매개변수의 회귀계수 $\beta = .205$, $p < .001$ 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의 회귀계수가 .388에서 .357으로 감소한 바, 사회신뢰가 사회적 지지와 불안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신뢰 ($r = -.002$, $p = .975$)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정부신뢰는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신뢰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SPSS macro를 통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 Sobel test의 경우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 표본 분포를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부트스트래핑은 표본 분포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칭적 신뢰한계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접효과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정치 계산이 가능하다고 보고된다[58].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재추출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각각에 대해 95%의 신뢰수준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 사회신뢰의 경우 하한값 $-.0911$, 상한값 $-.0097$ 로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신뢰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변인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 variable inflation factor)와 허용치(tolerance)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의 VIF값은 모두 10 이하였고 허용치는 0.1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불안에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또한 일반인들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불안간의 관계에서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신뢰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불안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불안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사회적 지원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16],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불안 수준이 낮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관성을 보인다[19].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변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공동체 구성원이 감염병 상황에 잘 대처할 거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한 관계 내에서 지지받는 경험은 지인·친구와 같은 가까운 관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며, 이는 결국 사회신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한 유대나 우정, 서로 신뢰하는 환경이 사회신뢰를 조성하는 데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들과 맥을 같이한다[43-48].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지지 및 신뢰의 결과가 사회 전반에 전이·확장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신뢰와 불안 간에도 유의미한 부적 상관성이 나타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들은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불안감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신뢰가 불안감을 낮추는 데 중요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신뢰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도¹⁾에 대한 부분도 차후 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신뢰와 마찬가지로 정부신뢰 또한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신종전염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신뢰가 사람들의 불안감에 영향을 주며[38, 40], 감염병 유행이라는 위험상황에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나 정책에 대한 신뢰, 국가의 감염병 통제능력에 대한 지각이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4, 38, 39].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사태

1) 사회학 연구에서는 사회신뢰를 높이는 방안으로 공적·제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22, 59], 국가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60, 61].

에서 정부나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정보 등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 결과 사회적 지지와 정부신뢰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지지처럼 대인관계 상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이 정부신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신뢰가 대통령, 정치인, 언론에 대한 공적신뢰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48]는 선행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많은 제약과 변화들은 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공포나 소외감, 불안, 우울,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한다. 이 같은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 확산되며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반인의 심리적 경험을 살펴본 점, 팬데믹 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를 살펴본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그동안은 사회학 연구에서만 다루었으나, 개인의 심리적 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인인 '사회신뢰'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것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밝힌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가 단일문항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응답에 있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제한점이 있는 바, 이후 연구들에서는 신뢰를 보다 다층적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문항들을 구성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신뢰를 측정했기 때문에 한국인의 일반적 사회신뢰라고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생 후 확진자가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들어선 시기에 이틀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로나19 사태가 다소 진정되었으나 향후 산발적으로 감염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감안하여 이 시점에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러나 자료 수집 기간이 보다 폭넓지 못한 점, 이로 인해 응답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 제한점으로 보인다. 셋째,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사회신뢰 및 정부신뢰 간의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본 연구의 목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다소 미흡한 점이다. 넷째, 감염병 상황에서 신뢰에 대해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사회신뢰와 정부신뢰 이외에 가족 및 혈연집단, 친구와 같이 자신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 연고 집단에 대한 신뢰가

배제되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친소관계에 따른 신뢰의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감염병으로 인한 여러 변화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재난갈등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어떠한 재난이든 재난 현상을 해석하고 자기 행위의 동기로 활용하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양태에 따라 '좋은' 재난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재난도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62].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안에만 머무르기보다, 보호요인들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가는 데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Hankook Research. (2020, 04, 01). *Public opinion in public opinion 'Planning: Corona19 Quadratic Recognition Survey(situational awareness, social distancing, etc)'*
<https://hrcopinon.co.kr/archives/15262>
- [2] Empos Data Lab. (2020, 03, 12.). *Corona 19 Big Data : consumer response analysis @daily change.*
<http://bigdata.emforce.co.kr/index.php/2020031201>
- [3] NEWS1. (2020, 04, 27.). *Corona 19 advanced "non-face-to-face economy"...'Search King' Naver, 'Shopping Kingdom' Leap.*
<https://www.news1.kr/articles/?3917483>
- [4] D. H. Lee, J. Y. Kim & H. S. Kang. (2016). The Emotional Distress and Fear of Contagion Relat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MERS) on General Public in Korea.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 35(2), 355-383.
- [5] S. Chua, V. Cheung, C. Cheung et al. (2004).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SARS Outbreak in HongKong on High-Risk Health Care Workers. *Can J Psychiatry*, 49, 391-393.
- [6] I. Mak, C. Chu, M. Yiu, S. Ho & V. Chan. (2010). Risk factors for chronic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PTSD) in SARS survivors. *General Hospital Psychiatry*, 32, 590-598.
- [7] Y. Bai, C. C. Lin, C. Y. Lin, J. Y. Chen, C. M. Chue & P. Chou. (2014). Survey of stress reactions among health care workers involved with the SARS outbreak. *Psychiatric Services*.
- [8] L. A. Nickell, E. J. Crighton, C. S. Tracy, H. Al-Enazy, Y. Bolaji, S. Hanjrah & R. E. Upshur. (2004). Psychosocial effects of SARS on hospital staff: survey of a large tertiary care institutio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70(5), 793-798.

- [9] A. Main, Q. Zhou, Y. Ma, L. J. Luecken & X. Liu. (2011). Relations of SARS-related stressors and coping to Chinese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the 2003 Beijing SARS epidemic.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3), 410.
- [10] K. C. Gunthert, L. H. Cohen & S. Armeli. (1999). The role of neuroticism in daily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5), 1087.
- [11] T. F. Lau, S. Griffiths, Choi, Kai Chow & H. Tsui. (2010). Avoidance behaviors and negative psychological responses in the general population in the initial stage of the H1N1 pandemic in Hong Kong. *BMC Infectious Diseases, 10*(1), 1-13.
- [12] Donga.com. (2020, 03, 04.). *Citizens of Gyeonggi-do Province, Corona 19 Infection Fear is Higher Than MERS.*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99994759/2>
- [13] KBS NEWS. (2020, 02, 13.). *Deputy Prime Minister Hong Nam-ki "COVID-19, Effects the economy more than MERS in fear."*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80995&ref=A>
- [14] Seoul Economic Daily. (2020, 04, 20). *"The psychological quarantine system is as urgent as physical quarantine to overcome corona."*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JSTGF4S>
- [15] Korean Society of Traumatic Stress Studies. (2020). *Coronavirus Infectiousness-19 Survey of the National Mental Health.* <http://kstss.kr>
- [16] M. Stroebe, & W. Stroebe. (1983). Who suffers more? Sex differences in health risks of the widowed. *Psychological Bulletin, 93*(2), 279-301.
- [17] L. Berkman & S. Syme. (1979). Social networks, host resistance, and mortality: A nine-year follow-up study of Alameda County residents.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9*(2), 186-204.
- [18] S. Pressman, S. Cohen, G. Miller, A. Barkin & B. Rabin. (2005). Loneliness, Social network size, and immune response to influenza vaccination in college freshman. *Health Psychology, 24*(3), 297-306.
- [19] S. Y. Lee, J. W. Jung, D. K. Hwang, C. K. Son, S. M. Yoon, S. M. Chae, M. R. Cha & H. J. Kim. (2015). *The Cause Analysis and Countermeasure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Uncertainty in Korean Societ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Research Report. 2015-22.
- [20] Y. R. Oh. (2004). *A Study on the Effect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the Quality of Life: Focusing on Parents of Childhood Cancer Patients in Seoul and Gyeongin Area.* A master's thesis at Inha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 [21] J. K. Kim. 2006. The Effect of Trust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on Cooperative Behavior in Social Dilemma Situ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3), 31-44.
- [22] C. W. Park. (2000).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Comparative Societies 3*, 137-163.
- [23] J. H. Lee. (1998). Social Structurization of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2*, 311-335.
- [24] Yonhapnews. (2019, 11, 25.). *The mutual trust of Koreans is at rock bottom... "142nd out of 167 countries in social capital ranking"*.
<https://www.yna.co.kr/view/AKR20191125081300009>
- [25] S. Y. Han. (2005). Tasks and Suggestions for Psychological Researchers on the Trust and Mistrust of Korean Society.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1*, 163-174.
- [26] J. H. Lee. (2006). Trust and civil society: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Americ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0*(5), 61-98.
- [27] Hankook Research. (2020, 04, 08.). *Planning survey: Corona19 Overcoming and Social Trust-Corona's deep-seated mutual trust...Half of them are still living on their own.*<https://hrcopinion.co.kr/archives/15309>.
- [28] Seoul newspaper. (2020, 04, 20.). *"Economic difficulties and anxiety are great, but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s highly trusted"*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21008007&wlog_tag3=naver#csidx677fa4363ce89f09ce377366e846001.
- [29] J. I. Lee. (2001). Emotion in the Workplace : Trust and Distrust between Leader and Member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 20*(1), 91-128.
- [30] Barber, Bernard. (1983). *The Logic and Limits of Trust.*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31] C. M. Park & W. S. Kim. (2006). Generating Social Trust in South Korea :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Stat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40*(2), 149-169.
- [32] S. I. Lee. (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nd Gender Difference between General and Government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4*(4), 162-203.
- [33] C. N. Son. (2005). Trust and Health: Mind-Body Problem or Integrative medicine.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special issue, 11*(1), 85-95.
- [34] L. Rocco & M. Suhrcke. (2012). *Is social capital good for health? A European perspectiv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gional Office for Europe.
- [35] B. H. Cho. (2014). *Korean Social Trends 2014: Social capital and health.* Statistics Development Institute of Statistics. 121-129.
- [36] S. Cohen, L. G. Underwood & B. H. Gottlieb. (2000). *Social Support Measurement and Intervention: A Guide for Health and Social Scientis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37] S. Lijun. (2011).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 Di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4), 478-492.
- [38] B. H. Cho (2009). Korean's Perception of Mad Cow Disease. *Health and Social Science*, 25, 129-152.
- [39] M. Deurenberg-Yap, L. L. Foo, Y. Y. Low, S. P. Chan, K. Vijaya & M. Lee. (2005). The Singaporean response to the SARS outbreak: knowledge sufficiency versus public trust.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0(4), 320-326.
- [40] J. E. Park & A. R. Son.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Credibility and Risk Perception of the Mad Cow Disease. *Korean Public Health Research*, 36(2), 27-34.
- [41] H. W. Lee & S. B. Yang. (2012). Cross-national Comparison of Generalized Trust between Kore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38(3), 123-144.
- [42] Y. S. Jung. (2014). *A Study on the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of Social Capital in Local Community: Focused on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Data*.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egree dissertation.
- [43] E. M. Uslaner.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44] T. G. Yoo. (2014). Interpersonal Trust and Confidence in the Governments of Korea, Japan, the USA, and Germany: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States and Influential Factors. *Korean Political Studies*, 23(3), 189-218.
- [45] L. Jamieson. (1998). *Intimacy: personal relationships in modern societies*. Cambridge, UK: Polity.
- [46] R. E. Pahl. (2000). *On Friendship*. Cambridge, UK: Polity.
- [47] L. Yaojun, P. Andrew & S. Mike. (2005). Social Capital and Social Trust in Brit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2), 109-123.
- [48] J. E. Roh & H. J. Kim. (2015). Trust in adolescents: Specific trust, general trust, public trust. *Studies on Korean Youth*, 26(2), 177-207.
- [49] J. Y. Shin, H. Y. Park, J. R. Kim, J. J. Lee, H. W. Lee, S. H. Lee & H. S. Shin. (2019). Psychiatric morbidity of survivors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Korea, 2015.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58(3), 245-251.
- [50] O. S. Kim, J. H. Oh & K. H. LEE. (2016). The Convergence Study on Anxiety, Knowledge, Infection Possibility, Preventive Possibility and Preventive Behavior Level of ME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 59-69.
- [51] H. W. Perkins & L. B. Harris. (1990). Familial bereavement and health in adult life course perspective. *J Marriage Fam*, 52, 233-241.
- [52] H. C. Kim, S. Y. Yoo, B. H. Lee, S. H. Lee & H. S. Shin. (2018). Psychiatric findings in suspected and confirmed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patients quarantined in hospital: a retrospective chart analysis. *Psychiatry Investig*, 15, 355-360.
- [53] E. Poon, K. S. Liu, D. L. Cheong, C. K. Lee, L. Y. C. Yam & W. N. Tang. (2004). Impac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n anxiety levels of frontline health care workers. *Hong kong Medical Journal*, 10(5), 325-330.
- [54] J. T. Kim & D. K. Shin. (1978).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of STAI in Korea. *Modernmedicine*, 21(11), 65-75.
- [55] S. Y. Seo, Y. S. Lim, S. H. Lee, M. S. Park & T. W. Yoo. (1997).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the Duke-UNC functional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18(3), 250-259.
- [56] M. K. Min, H. S. Joo & H. N. An. (2018). Psychosocial Factors Influential to the Mental Health of the Public Indirectly Affected by the 9/12 Gyeong-ju Earthquake: Focusing on Individual Resilienc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Public Trus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9(5), 93-116.
- [57] M. A. Lee. (2018).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Size of Social Networks and Depressive Symptom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terpersonal Trus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7(4), 171-200.
- [58] Y. S. Seo. (2010). Testing Mediator and Moderator Effect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2(4), 1147-1168.
- [59] J. Y. Lee. (1998). *Democracy, social trust, social capital*. Quarterly publication 『Sasang』 summer edition: 65-93.
- [60] J. Brehm & W. Rahn. (199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3), 999-1023.
- [61] Newton, Kenneth. (199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Established Democracies*. In Pippa Noris(ed.), *Critical Citizens: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62] J. H. Eun. (2016). *Causes and Solutions of Disaster-Conflict*.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Research Report 2016-27.

양 미 라(Mi-ra Yang)

[정회원]



- 2009년 2월 :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철학과(문학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석사)
- 2013년 12월 ~ 2019년 6월 : 광주스마일센터 임상심리사
- 2019년 7월 ~ 현재 : 공군 제1전투비행단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관심분야 : 트라우마 치유, 신체와 마음, 문화심리, 임상심리
· E-Mail : starlet0704@gmail.com

김 해 숙(Hae-Sook Kim)

[정회원]



- 1998년 8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문학사)
- 2001년 2월 : 아주대학교 심리학과(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심리학과(심리학박사)
- 2019년 3월 ~ 현재 :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트라우마, 심리치료, 범죄심리, 임상심리
· E-Mail : 2015154@honam.ac.kr